

## 수확기 쌀 시장 안정,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**시장격리**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매입해 오던 공공비축미(36만톤)와 해외공여용 쌀(3만톤)에 더해 20만톤의 쌀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여 총 59만톤을 매입

\*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인 52000원/40kg(조곡기준)으로 지급

**민간매입 확대**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**민간의 벼 매입자금으로 총 3천억원을 추가 지원**하고, **농신보의 RPC 보증한도**를 30억원에서 **50억원**으로 늘리는 등 **쌀 유통업체들의 매입량 확대**를 위한 조치를 시행

\* '15.11.12 기준 민간 매입량은 178만톤으로 작년 동기 154만톤에 비해 15% 많은 수준

**수입쌀 관리**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는 **수입된 밥쌀용 쌀의 판매 물량과 횟수를 축소**하고, 연말까지 **쌀의 혼합 금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**

\* 월평균 밥쌀용 쌀 판매물량 : (9월) 8천톤 → (10월) 6 → (11월) 4 → (12월) 1

\* 밥쌀용 쌀 판매 횟수 : (~10월) 주 3회 → (11월) 주 2회 → (12월) 주 1회

**쌀 재고 대책** **가공용·주정용 쌀 공급 확대**, **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**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**복지용 '나라미' 공급 확대** 등

\* 가공용·주정용 공급 확대 : ('14) 29만톤 → ('15) 37 → ('16) 61

## 밥쌀 수입, 사실은 이렇습니다.

### 쌀 관세화

- 쌀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의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, 우리나라는 관세율을 **513%**로 정해 WTO에 통보('14.9.30)하였으며,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WTO 검증과정에 있음
- 관세화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두 번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약속한 **40만 9천톤의 쌀을 매년 수입**해야 하지만 더 이상 저율관세로 **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아도 됨**

\* 쌀 의무수입물량 :

('95) 51천톤 → ('04) 205 → ('14 이후) 409 (국내 소비량의 9% 수준)

### 밥쌀 수입

- 국산쌀과 달리 수입쌀(40만 9천톤)에 대해서만 용도를 제한하여 가공용쌀만 수입·판매하는 것은 **WTO 규범 위반** 등 통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쌀의 일부를 **밥쌀용으로 수입**하는 것이 불가피함
- 수입쌀이 들어오더라도 정부는 국내 수급·가격, 재고량 등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**수입쌀의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**하여 **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**하고 있음

## 쌀 농가 소득, 이렇게 보장됩니다.

- '05년 **추곡수매제 폐지 이후** 식량안보 기능은 **공공비축제**로, 소득안정 기능은 **쌀소득보전직불제**로 개편하였음

### 공공비축제

-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**식량위기에 대비**하여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농가로부터 미리 사서 관리하는 제도로, '05년 이후 매년 36~37만톤의 쌀을 공공비축용으로, '14년부터는 아세안 국가 원조용으로 3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있음

\* ('15) 공공비축 매입물량 39만톤

### 쌀소득보전직불제

-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목표가격(188000원/80kg)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어 '05년 이후 농가는 **목표가격의 97% 이상**을 보전 받아 왔음

\* ('14) 농가 실제 수취가격(184730원/80kg) =

수확기쌀값(166198) + 고정직불금(14306) + 변동직불금(4226)

= 목표가격(188000원/80kg)의 98.3%

\* 쌀 직불금 총 지급액 : ('13) 6866억원 ('14) 9501억원

## 수확기 쌀값 안정과 소득지지 노력, 정부의 약속입니다.

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  
**농림축산식품부**  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